강진 상처 미얀마에 자비로 '동행'하다

조계종 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
7월 23~29일 미얀마서 자비나눔
4월 1일부터 모연 구호기금 전해

12개 피해마을에 8000만원 전달
대형 정수 시설, 태양광 램프 등
오지 마을에 생활 기반시설 설립

시타구불교협회에 12만달러 기부
만달레이 도시, 사원 등 복구 활용
"늦어서 미안하다…희망 잃지 말길"

미얀마 만달레이=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은 7월 23~29일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지진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자비나눔 활동을 펼쳤다. 사진은 일화 스님(사진 오른쪽)과 진허 스님(사진 왼쪽)이 샤카르테 마을 아이들을 안고 웃는 모습.

지난 3월 28일 진도 7.7의 강진이 불교국가 미얀마를 덮쳤다. 미얀마 국민 38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5000명 넘게 다쳤다. 건물과 도로 등 사회 기반시설들이 붕괴됐고, 미얀마 국민들의 정신적 기둥인 불교 사원들도 크게 손상됐다.

강진 발생 4개월이 지났지만, 미얀마 아픔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이하 동행)과 찾은 미얀마 만달레이의 현장은 그랬다. 다리는 끊어졌고, 이재민들은 곳곳에 천막을 설치하고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마을 12곳에 희망의 손길 전하다

동행 지원단은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지진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자금과 물품들을 전달하며 자비나눔 활동을 펼쳤다.

복구 자금과 물품 지원은 지난 4월 1일부터 미얀마 강진 피해 지원을 위한 모금을 통해 모연된 것으로 이번 활동으로 2억4500만원을 피해 주민과 현지 불교계에 전달했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해외주민운동연대(KOCO)를 통해 12개 마을 1200여 가구에 태양광 램프, 식료품 키트, 아이들 장남감, 관정시설·대형정수기 설치 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장난감의 경우 재난지역에 대한 정서적 지원 확대라는 현장 추세를 반영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동행 지원단이 지원한 마을 12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오지 중의 오지로 구호단체들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곳들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7월 25일 동행 지원단이 찾아간 첫 마을인 에텔레(Yaw Htwet Lay)는 243가구 정도의 주민들이 땅콩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작은 농촌마을로 지난 강진으로 기반시설이 무너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행의 지원은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에텔레 주민들은 마을의 사원 초입부터 "밍글라바(안녕하세요)"라고 외치며 환한 미소로 동행 지원단을 맞이했다.

"국내와 미얀마 사정으로 늦어져서 미안하다. 그럼에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줘 고맙다"고 전한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희망을 잃지 말길 당부했다. 스님은 "지진과 정치 갈등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 것 같은 데도 항상 웃는 모습에서 미얀마 국민들의 저력을 본다"면서 "특히 어린이들의 환한 미소가 미얀마의 희망을 말해 준다. 미얀마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행 지원단이 찾은 에텔레 마을에서 진행된 기념촬영.


레인콘 주민들에게 물품을 나눠주는 일화 스님과 진허 스님.


마을에 설치된 태양광 램프를 살펴보는 일화 스님.



일화 스님과 진허 스님이 시타구 사야도에게 지원금 12만달러를 전달하고 있다.


레인콘 마을 주민들이 일화 스님에게 보답을 위한 공양물을 전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찾은 샤카르테(Sa kar Te) 마을에서도 동행 지원단에 대한 환영은 이어졌다. 어린이 2명이 일화 스님과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 진허 스님에게 금꽃 목걸이를 걸어 주며 예를 표했다. 이 마을 역시 69가구가 농사로 삶을 이어가는 작은 촌락으로 강진에 삶의 기반들이 무너졌다.

일화 스님과 진허 스님은 두 마을에서 태양광으로 충전해 사용하는 램프를 비롯해 쌀, 소금, 식용류, 양파, 과자 등을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아이들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는 장난감 보따리를 풀었다. 자신이 원하는 장남감을 손에 쥔 아이들은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기뻐했다.

의대를 지망했지만 강진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에텔레 주민 따타수이(20) 씨는 "필요한 물품들을 한국불교 스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면서 "멀리 한국에서 미얀마까지 와 주신 스님과 지원단 관계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생활이 어려워져 돈을 벌어야 한다"며 "지진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안정화되면 외국으로 건너가 돈을 벌고, 기회가 된다면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지에 빛 · 물 전하는 '아름다운동행'

7월 26일 동행 지원단은 녀엉콘(Nyaung Kone)·레인콘(Lein Kone) 마을을 찾아 쌀, 소금, 식용류 등 식용품과 양은냄비, 바구니 등 생활용품들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지원단은 KOCO를 통해 녀엉콘 마을에 설치된 대형정수기와 태양관 램프 등을 확인·점검했다. 마을 우물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정수하는 대형정수기는 1시간에 500ℓ의 물을 정수·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 강진 이후 심각한 식수난에 시달리던 마을 주민들에게는 '감로수'와 다름 없었다.

오지 마을들의 정수시설 설치를 진행한 자르미 피스센터 본부장은 "식수를 구하기 위해 7km 이상을 걷는 것은 일상다반사였다. 강진 피해 이후에는 도로와 다리가 파괴돼 물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웠다"면서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 조계종과 동행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일화 스님은 "물은 생명과 같다. 좋은 물을 먹어야 병에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면서 "한국불교의 지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녀엉콘 마을에는 동행이 지원한 16개의 태양광 램프가 설치됐다. 낮 동안 태양광 패널로 충전하고 저녁에는 불을 밝히는 태양광 램프 역시 주민들의 야간통행 등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불교계의 지원에 마을 주민들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녀엉콘 주민 쉬에즈(21) 씨는 "한국불교계에서 마을을 찾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 마을에 정말 필요한 시설들이다"며 "지진으로 집이 기울었고 생활도 어려워졌다. 지원 물품으로 온 가족이 열흘 정도 넉넉히 지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나눔을 나눔으로 보답하는 주민 '감동'

지진으로 삶의 기반이 붕괴되고, 군부 쿠데타로 정치는 혼란스럽지만 지금의 미얀마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선한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강진으로 집이 전부 무너지는 피해를 입고 현재는 소를 키우고 잡초를 베며 살아가고 있는 마후이마(36, 샤카르테 거주) 씨는 "지진으로 피해를 겪고 트라우마도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정말 필요한 물품들"이라고 울먹였다.

'생활이 안정되면 뭘 하고 싶냐'는 질문에 마후이마 씨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기부하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직접 만든 수공예품, 농사 지어 재배한 땅콩까지 이국에서 온 스님과 지원단에게 보답품들의 행렬도 이어졌다. 더 많이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과 아쉬움마저 느껴졌다.

땅콩을 한아름 가져와 지원단에 전한 띠 라밋(40, 샤카르테 거주) 씨는 "마을을 도와준 한국불교 스님과 지원단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라며 "이 공양물을 스님들이 드시면 힘을 내 수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동행, 현지 사원 6곳 재건 지원

앞서 동행 지원단은 7월 24일 사타구 불교도협회 사가잉 지부 위파사나 센터 본관을 찾아 사타구 불교도협회에 미화 12만달러를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는 아신 나니사라 시타구 샤야도를 비롯해 불교협회 중앙종회의원 스님, 피해 사찰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협회 최고 위치의 아신 나니사라 시타구 샤야도는 스님들을 대표해 조계종 스님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스님은 "한국불교와 미얀마 불교는 형제 같은 유대관계를 지속해 왔다"며 "대승과 소승, 한국과 미얀마, 중국불교는 모두 하나의 강에서 출발했다. 오늘 한국불교의 지원은 전 세계불교가 일불제자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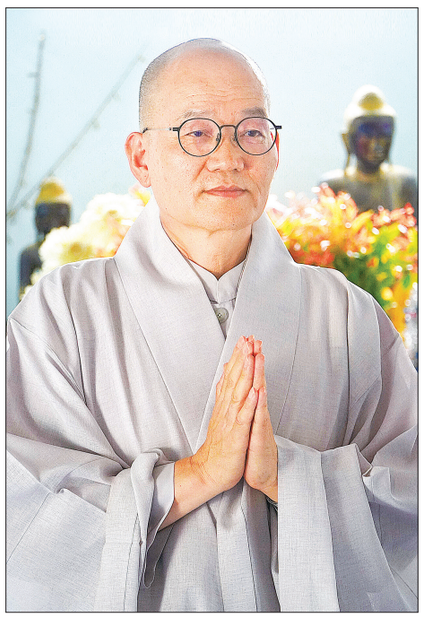
일화 스님은 "더 많이 도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작은 정성이 도움이 돼 미얀마 불교와 국민들의 삶이 하루 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동행이 지원한 12만달러는 만달레이 병원 및 수도 재건과 시타구불교도협회 대학교·위파사나학회 복원, 비구사원 5곳·비구니사원 1곳 재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미얀마 강진 피해 지원을 위한 자비나눔에 동행 지원단은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동행과 일정을 함께 한 조계종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 진허 스님은 "현장에서 미얀마 국민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인상깊었다. 이들의 행복은 서로를 향한 따듯한 유대감에서 나오는 것 같다"면서 "강진 피해가 하루 속히 복구돼 미얀마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인터뷰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미얀마 기금 후원 감사…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후원자 · 지원단체 있어 사업 가능
"힘들어도 이웃 돕는 미얀마人
진짜 행복 무엇인지 아는 사람"

"미얀마 강진이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된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현장에 와 보니 알겠습니다, 미얀마 강진의 아픔은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7월 23~29일 미얀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현장을 찾은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안타까움이 담긴 소회를 밝히며 말문을 열었다.

지난 3월 28일 미얀마를 덮친 진도 7.7의 강진이 발생한 지 4개월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얼마 전 지원단체 대표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아직도 진도 5.4 정도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녀엉콘 마을 사원 주지 스님은 사원 안에서 잘 수가 없어 사찰 밖 민가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런 미얀마의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 불자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해요."

강진으로 생활 기반이 붕괴되고, 군부의 쿠데타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환한 미소를 잃지 않는 미얀마 국민들에 대해 일화 스님은 "행복지수가 높은, 진짜 행복을 아는 국민들"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미얀마에 오기 전에는 천재지변과 내부 갈등으로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주민들을 접하니 너무 해맑았어요. 미얀마 국민들을 보면 물질적으로 풍족해야 행복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조계종 공식 공익기부재단으로서 아름다운동행이 국내외 구호사업을 전개하는 이유가 '나눔으로 나눔을 독려하기 위함'임을 일화 스님은 강조했다.

"기부 모연에 사업의 중심을 두면서도 재난구호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이를 통해 여러 후원자들이 후원 동참을 권선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함입니다. 아름다운동행의 사업은 후원자와 현장에서 지원을 담당해 주는 단체들과 '동행'하기에 원만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에 불자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얀마 만달레이=신중일 기자